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Relations between Leisure Expenditure,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 수 金純美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洪成姬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Science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 Soon-Mi Kim
Kei-Myung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 Hong Sung Hee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path model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leisure expenditure,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suggested. The sample in this study consisted of 3,519 urban married couple living in Korea.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nalysis.

Empirical tests' results showed some evidence has been provided that supported the conceptual framework. In husband's model, the household's leisure expenditure had vital direct effect on the husband's leisure satisfaction, while it had not any effect on the husband's life satisfaction. Also, in wife's model, the household leisure expenditur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wife's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re was not any effect that mediated through wife's leisure satisfaction.

Ⅰ. 문 제 제 기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8.7%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놀라운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출비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비의 고급화 경향으로 생활필수재적 성격을 띠는 비목에 대한 지출구성비율이 감소한 반면 교육, 여행 및 서비스,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과 같은 선택적 비목에 대한 지출구성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교양오락비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의 3.3%에서 1989년에 4.7%, 1993년에는 5.1%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감소하면서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생활의 일부로서, 하나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가는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여가는 일반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Unger 등, 1981)이며, 여가소비방식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과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영역이 생활의 질에 대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Campbell 등, 1976).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중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의 4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가계가 경험하는 소비생활문제영역 중 여가선용문제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홍향숙, 1989). 우리 사회는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여가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가치관이 조성되었으나 원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비 지출을 통해 만족할만한 산출을 얻는데에는 아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비 지출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통한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비 지출,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 부부간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종숙, 1989 ; 임정빈, 1990b; 박미금, 1994)에 근거하여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금전자원의 배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구체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단체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여가관련상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도구를 이용하거나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여행, 관람, 사교 등과 같이 가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가정 내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김외숙 등(1993)은 여가장애와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을 비용장애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가비 지출이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및 개인가처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가계지출중 여가비와 관련있는 교양오락비의 비율이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3년부터 1982년까지 교육교양오락비를 분석한 윤정혜(1984)의 연구에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교육교양오락비는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와 함께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양세정(1991)의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교육·교양오락비 소비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점차 증가율이 커져 83.4%의 증가율을 보였고, 1990년에는 총소비지출의 약 12%를 차지하여 식료품비, 기타 지출비율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고 하였다. 한편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화를 고찰한 강이주(1988)의 연구에서는 총소비지출에 대한 잡비의 구성비가 1963년 14.47%에서 1986년에 40.2%로 크게 증대되어 식품비와 함께 약 20년간의 가계 총소비지출패턴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잡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잡비 중 취미오락 등의 여가비 지출도 부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활동 중 여가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도 도시가계연보의 1,249가구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선택재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이성민(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양오락비를 비롯한 외식, 일반가구, 개인교통 등으로 구성된 선택재의 소비지출이 가계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여가활동과 관련된 가계소비지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의 지출규모나 지출구성비율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Campbell 등(1976)은 여가소비방식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홍성희(1996)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족여가의 비용 및 여가비용 적정도에 따라 주부들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비용 적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에서 여가비용의 정도뿐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연구에서 여가영역에 대한 만족은 전체 생활의 질에 대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로서 한경미(1995)는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생활 및 직업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생활만족도는 전체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가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활동에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가족공동의 여가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여가를 활용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임정빈 등(1995)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주부들이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는 수준에 약간 못 미쳤으나 이들의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련성과 여비지출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2. 관련변수

Dadis 등(1981)은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관련변수, 사회계층변수, 지역변수 등이 여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사회계층변수 중 소득이 여가비 지출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밖에 직업과 교육수준, 가족관련변수 중 가족수, 결혼상태, 막내자녀연령, 가장의 연령, 그리고 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즉 소득은 여가비지출과 정적 관계, 가족수와 가장의 연령은 부적 관계을 보였으며,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이 그렇

지 않은 가족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또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직업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거주가구가 농촌거주가구보다 더 적게 지출하였으며, 취업주부가구가 여가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소득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유료의 여가활동이 사치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저축, 부채행동의 변화가 여가비 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Kim 등(1995)은 여가비 지출을 연간 소극적 여가에 지출한 비용과 적극적 여가에 지출한 비용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요인과 시간관련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극적 여가비 지출에는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소득 대 지출의 비율, 주택소유형태 등의 재정적 요인과 시간관련 요인 중 자동차 소유여부, 사회경제적 요인 중 부인의 교육수준과 거주지가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시간관련 요인 중 학령전 자녀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 적극적 여가비 지출에는 근로소득과 자동차 소유여부, 부인의 교육수준이 정적 관련을 갖는 변수였으며, 총여가비 지출에는 모든 재정적 변수가 정적 관련을 보여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대 지출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가소유자일 때 여가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가구일 때 연간 총여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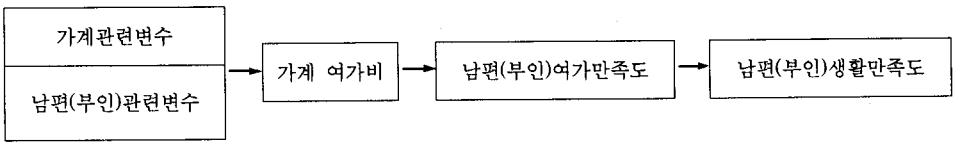
또 여가비 중에서도 여가서비스 지출비용을 연구한 Talbot(1989)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소유가구일 때, 도시거주가구일 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여가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소비지출패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여가비 지출에 촛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여가비 지출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김영숙(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교양오락비 지출에 있어 총월수입, 부인의 직업, 가족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민(1992)의 연구에서는 교양오락비를 포함한 외식, 가구, 개인교통 등의 선택재 소비지출은 가계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외에 자가소유자인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택재 소비지출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족여가에 대한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 가족여가비용 뿐 아니라 여가비용에 대한 적정도 인지에 따라 주부들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 기혼취업여성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전체 생활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나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 중년기 주부의 여가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통해 여가비 지출 및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여가비 지출과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가, 계관련변수와 남편관련변수(부인관련변수)는 가족의 여가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가계관련변수, 남편관련변수(부인관련변수) 및 가계의 여가비 지출은 남편(부인)의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세째, 가계관련변수, 남편관련변수(부인관련변수), 가계의 여가비 지출 및 남편(부인)여가만족도는 남편(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네째, 남편(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때 남편의 회귀식과 경로모형에서 부인관련변수를 통제하였으며, 부



〈그림 1〉 연구모형

인의 회귀식과 경로모형에서는 남편관련변수를 통제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계관련변수에는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및 주택유형, 자동차소유여부, 부모동거여부, 가족수 및 자녀수, 가계총소득, 저축액 및 부채액, 주택가격, 남편 및 부인관련변수에는 교육수준, 직업, 경제전망 및 여가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다단계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수집한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로 이러한 자료중 여가비지출이 부부의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3,519 부부가족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전체가구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54.1%, 자가소유가구가 53.0%,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56.4%였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가 30.2%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가족은 9.7%, 남편의 직업으로는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인이 취업한 가구가 12.1%를 나타냈다. 여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남편과 부인은 각각 33.8%, 32.5%였으며, 이들은 일보다 여가를 우선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족수는 평균 4.01명이었으며, 자녀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초중고 학령기의 평균자녀수가 가장 많았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관한 것으로 가계총소득은 연간 1,912만원, 저축은 597만원, 보유하고 있는 부채액은 1,100만원이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13,311만원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특성으로는 교육수준이 각각 11.19년, 10.05년으로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인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1년 후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보통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교양오락 및 휴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79만원이었으며, 남편과 부인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남편의 여가만족도가 부인의 여가만족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의 생활만족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04)을 이용하였다. 가계관련변수, 남편관련변수 및 부인관련변수의 실태를 알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여가비 지출,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5 수준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가족관계만족+경제만족+건강만족
: 가족관계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경제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건강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매개변수	
가계의 여가비지출	교양오락비+휴가비(만원/년)
남편의 여가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부인의 여가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가계관련변수	
거주지역	1=대도시 0=기타
주택소유형태	1=소유 0=비소유
주택유형	1=단독주택 0=기타(아파트, 연립주택 등)
자동차소유여부	1=유 0=무
부모동거여부	1=동거 0=별거
가족수	동거가족원수
자녀수 : 6세이하	6세이하 자녀수
7-18세	7-18세 사이의 자녀수
19세이상	19세이상의 자녀수
가계총소득	가계근로소득+가계비근로소득(만원/년)
저축액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기타(만원)
부채액	금융기관부채액+사채액(만원)
주택가격	현재 거주하는 주택가격(만원)
남편관련변수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년수
남편의 직업 : 봉급생활	1=해당 0=비해당
자유업/자영업	1=해당 0=비해당
농림수산업	1=해당 0=비해당
비정규직	1=해당 0=비해당
미취업 및 기타	1=해당 0=비해당
남편의 경제전망	현재와 비교했을 때 남편의 1년 후 경제전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남편의 여가태도	남편의 노동에 대한 여가대체 성향
	1=적극적 0=소극적
부인관련변수	
부인의 취업유무	1=취업 0=비취업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년수
부인의 경제전망	현재와 비교했을 때 부인의 1년 후 경제전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부인의 여가태도	부인의 노동에 대한 여가대체 성향
	1=적극적 0=소극적

〈표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N=3,519)

범주형 변수	구 분	빈도(%)	범주형 변수	구 분	빈도(%)
거주지역	대도시	1903(54.1)	남편의 직업	봉급생활	1753(49.8)
	기타	1616(45.9)		자유업/자영업	1039(29.5)
주택소유형태	소유	1865(53.0)		농림수산업	375(10.7)
	비소유	1654(47.0)		비정규직	258(7.3)
주택유형	단독주택	1986(56.4)		미취업·기타	94(2.7)
	기타	1532(43.6)	남편의 여가태도	적극적 태도	1188(33.8)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	1064(30.2)		소극적 태도	2331(66.2)
	비소유	2455(69.8)	부인의 취업유무	취업	425(87.9)
부모동거여부	동거	340(9.7)		비취업	3094(12.1)
	별거	3170(90.3)	남편의 여가태도	적극적 태도	1145(32.5)
				소극적 태도	2474(67.5)

연속변수	빈도	평균	S.D.
가족수(명)	3519	4.01	1.12
자녀수: 6세이하	3519	0.58	0.76
7~18세	3519	0.77	0.97
19세이상	3519	0.43	0.86
가계 총소득(만원/년)	3432	1911.58	1434.39
저축액(만원)	2334	597.20	984.51
부채액(만원)	1110	1099.53	1374.74
주택가격(만원)	3106	13310.65	27256.47
남편의 교육수준(년)	3519	11.19	3.25
경제전망(점)	3519	3.03	0.74
부인의 교육수준(년)	3517	10.05	3.43
경제전망(점)	3519	3.03	0.74
여가비(만원/년)	3326	78.92	93.91
남편의 여가만족도(점)	3508	2.65	0.96
생활만족도(점)	3519	6.01	1.46
부인의 여가만족도(점)	3507	2.59	0.94
생활만족도(점)	3519	5.99	1.48

* 무응답으로 인하여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Ⅳ. 결과 및 해석

1.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여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가계의 여가비 지출에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관련변수와 부인관련변수를 각각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두 모형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역, 주택유형, 6세 이하의 자녀수, 주택가격,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여가태도 등이었다. 즉 대도시에 거주할 때, 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일 때, 6세 이하의 자녀수가 적을 때,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표 3〉 가계 여가비, 남편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가계 여가비 β	남편 여가만족도 β	남편 생활만족도 β
거주지역(대도시)	0.116**	-0.028	-0.015
주택소유형태(자가)	0.027	0.161**	0.014
주택유형(단독주택)	-0.119**	0.134**	-0.038
자동차소유여부(소유)	0.079	0.103*	0.086*
부모동거여부(동거)	-0.068	-0.013	-0.024
가족수	0.082	-0.073	-0.063
6세 이하 자녀수	-0.152*	-0.066	-0.014
7 - 18세 자녀수	-0.145	-0.006	-0.008
19세 이상 자녀수	-0.156*	0.012	-0.139
가계 총소득	0.049	-0.007	0.035
저축액	0.015	0.103*	0.055
주택가격	0.195***	-0.082	0.091
부채액	0.019	-0.029	-0.133**
남편교육수준	0.175***	0.134*	0.045
남편직업(봉급생활)			
자유업/ 자영업	0.035	-0.035	0.001
농림 수산업	0.054	0.029	0.057
비정규직	0.016	0.039	0.013
미취업/기타	0.019	0.018	-0.090*
남편 경제전망	0.086*	0.088*	0.086*
남편 여가태도	-0.081*	-0.099*	-0.030
가계 여가비		0.089*	-0.097*
남편 여가만족도			0.279***
상수	-23.537	1.987	11.428
R^2	0.185	0.106	0.171
F-Value	6.106***	3.028***	5.027***

* P 〈.05, ** P 〈.01, *** P 〈.001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여가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중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여가비 지출이 많은 결과는 대도시거주 가구일 때 여가서비스 비용이 많았던 Talbot 등(1989)의 연구결과나 연간총 여가비 지출이 더 많았던 Kim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도시화의 진전은 여가활동의 수용력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킬 것이라는 김광득(1994)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여가비 지출에 주택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동산관련 자산보유액이 선택성 소비지출인 여가비 지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력은 많은 연구(Dadis 등, 1981; Talbot, 1989; 이성민, 1992; Kim 등, 1995)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비 및 교양오락비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한편 부인관련변수를 통제한 남편의 여가비 지출 모형에 있어서는 19세이상의 자녀수와 남편의 경제전망이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관련변수를 통제한 부

〈표 4〉 가계 여가비, 부인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가계 여가비 β	부인 여가만족도 β	부인 생활만족도 β
거주지역(대도시)	0.103*	-0.012	-0.015
주택소유형태(자가)	0.028	0.146**	-0.055
주택유형(단독주택)	-0.119**	0.014	0.003
자동차소유여부(소유)	0.089*	0.093*	0.049
부모동거여부(동거)	-0.068	0.039	0.077
가족수	0.092	-0.052	-0.171*
6세 이하 자녀수	-0.155*	-0.110	0.167*
7 - 18세 자녀수	-0.148	-0.001	0.146
19세 이상 자녀수	-0.136	-0.030	0.028
가계 총소득	0.056	0.033	0.034
저축액	0.036	0.0002	0.059
주택가격	0.187***	-0.103	0.017
부채액	0.029	-0.013	-0.004
부인 교육수준	0.109*	-0.005	0.079
부인 취업유무(취업)	0.009	0.004	0.059
부인 경제전망	0.069	0.094*	0.061
부인 여가태도	-0.088*	-0.028	0.026
가계 여가비		0.065	-0.095*
부인 여가만족도			0.275***
상수	14.389	2.234	11.267
R^2	0.172	0.064	0.139
F-Value	6.607***	2.039**	4.597***

* P 〈.05, ** P 〈.01, *** P 〈.001

인의 여가비지출모형에서는 자동차 소유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동차 소유여부가 여가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Kim 등(1995)의 연구에서 자동차 소유가구가 더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였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계의 여가비 지출은 남편관련변수와 부인관련변수를 각각 통제하는 것에 따라 유의한 변수의 구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남편의 여가만족도는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자동차 소유여부, 저축액, 교육수준, 경제전망, 여가태도, 여가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가계의 저축액이 많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의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적일수록,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여가비 지출이 많을수록 여가에 대해 만족하였다.

한편 부인의 여가만족도에는 주택소유형태, 자동차 소유여부와 경제전망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소유했을 때,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그리고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수록 자신의 여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표 5〉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 여가비	거주지역	0.068***		0.053	0.122***
	주택유형	-0.133***		-0.045	-0.178***
R^2 = 0.135	6세이하 자녀수	-0.070***		-0.097	-0.027
F = 53.002***	19세이상 자녀수	0.041*		-0.019	0.021
	주택가격	0.176***		0.043	0.219***
	남편 교육수준	0.209***		0.050	0.259***
	남편 경제전망	0.058***		-0.002	0.056**
	남편 여가태도	-0.058**		-0.062	-0.120***
남편	주택소유형태	0.077***		0.003	0.080***
여가만족도	주택유형	0.039		-0.016	-0.024
	자동차소유여부	0.034		0.044	0.078***
R^2 = 0.034	저축액	0.037		0.031	0.068***
F 1= 9.858***	남편 교육수준	0.033		0.029	0.062***
	남편 경제전망	0.053*	0.006	-0.001	0.058***
	남편 여가태도	-0.081***	-0.008	-0.017	-0.107***
	가계 여가비	0.081***		0.280	0.110***
남편	자동차소유여부	0.131***		-0.003	0.128***
생활만족도	부채액	-0.082**		0.034	-0.048
	남편 미취업기타	-0.149***		0.034	-0.113***
R^2 = 0.123	남편 경제전망	0.077**	0.016	0.029	0.122***
F = 25.246***	가계 여가비	0.044		0.034	0.079***
	남편 여가만족도	0.243***		0.002	0.246***

* P 〈.05, ** P 〈.01, *** P 〈.001

다.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 모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주택소유형태였으며, 자동차 소유여부, 경제전망 등도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주택과 자동차 등과 같은 자산소유나 주관적 경제전망 등의 경제관련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여가만족도는 경제관련변수 이외에 자신의 교육수준, 여가태도, 여가비 지출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반면, 부인의 여가만족도는 여가생활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여가태도나 여가비 지출 등의 변수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가비 지출규모의 증가가 부인의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자동차 소유여부, 부채액, 남편의 직업, 경제전망, 여가비, 여가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부채액이 적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미취업인 집단에 비해 봉급생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여가비를 적게 지출할수

〈표 6〉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여가비	거주지역	0.069***		0.053	0.122***
	주택유형	-0.100***		-0.078	-0.178***
R^2 = 0.148	자동차소유여부	0.130***		0.117	0.247***
F = 67.351***	6세이하 자녀수	-0.101***		-0.128	-0.023
	주택가격	0.167***		0.052	0.219***
	부인 교육수준	0.184***		0.065	0.249***
	부인 여가태도	-0.063***		-0.202	-0.140***
부인	주택소유형태	0.066**		0.035	0.102***
여가만족도	자동차소유여부	0.044*		0.032	0.076***
R^2 = 0.015	주택가격	0.049*		0.035	0.084***
F = 11.055***	부인 경제전망	0.058**	0.240	-0.009	0.049***
부인	가족수	-0.009		-0.036	-0.028
생활만족도	6세이하 자녀수	0.136***		-0.038	0.009***
R^2 = 0.114	가계 여가비	0.060***	-0.024	0.030	0.090***
F = 106.724***	부인 여가만족도	0.311***		-0.009	0.302***

* P 〈.05, ** P 〈.01, *** P 〈.001

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가만족도로써 생활만족도에 대한 여가활동의 기여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가족수, 6세 이하 자녀수, 가계 여가비, 부인의 여가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수가 적을수록,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적을수록, 부인의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인도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가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모두 여가만족도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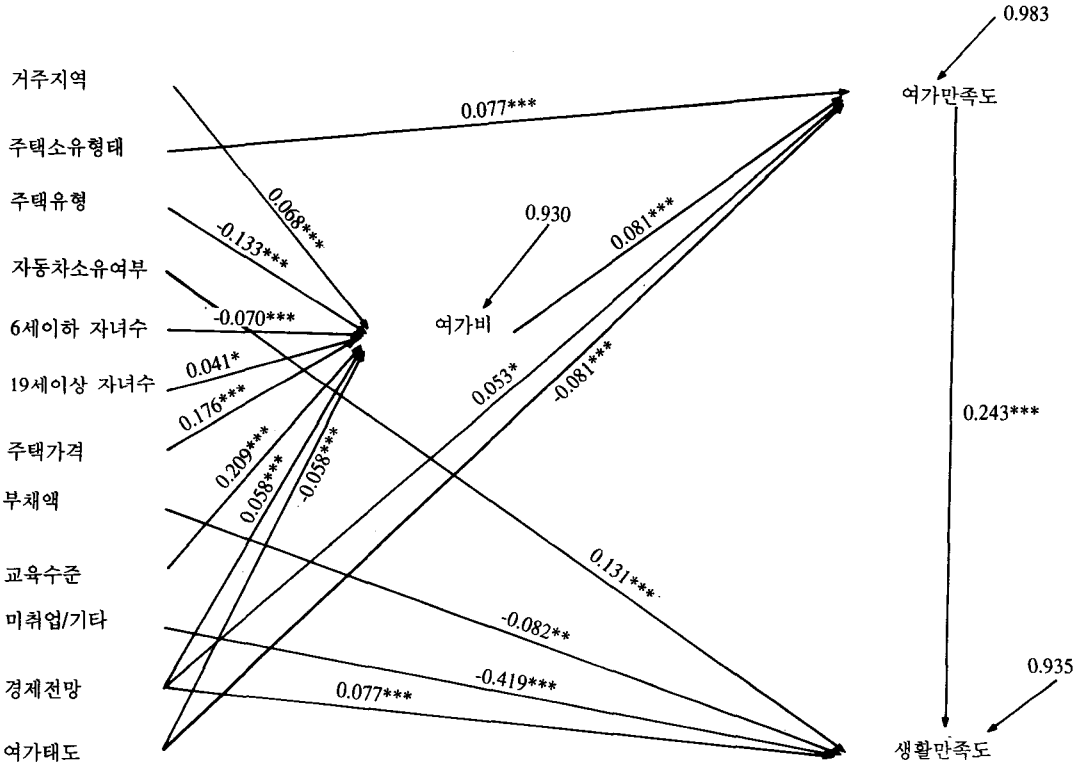
이상에서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가만족도로 나타난 결과는 임정빈 등(1995), 한경미(1995)의 연구에서 여가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여가비를 충분히 지출할수록 여가만족도가 증진되고,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가계 여가비는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비보다 여가비에 대한 적정도 인지가 생활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홍성희(1996)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가비 자체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남편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여부, 부채액, 직업, 경제전망 등의 경제관련 변수들이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인의 경우는 가족수와 6세 이하 자녀수 등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성별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역할수행 차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의 검증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의 모형에 따른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위하여 각 종속변수에 따라 1차 회귀분석을 하였고, 각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최종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도에 대한 회귀식에서는 주택소유형태, 남편의 경제전망, 여가태도, 가계의 여가비가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4%이었다.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남편의 여가만족도(β=.243)였으며, 직업, 자동차 소유여부, 부채액, 경제전망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제변수의 설명력은 12.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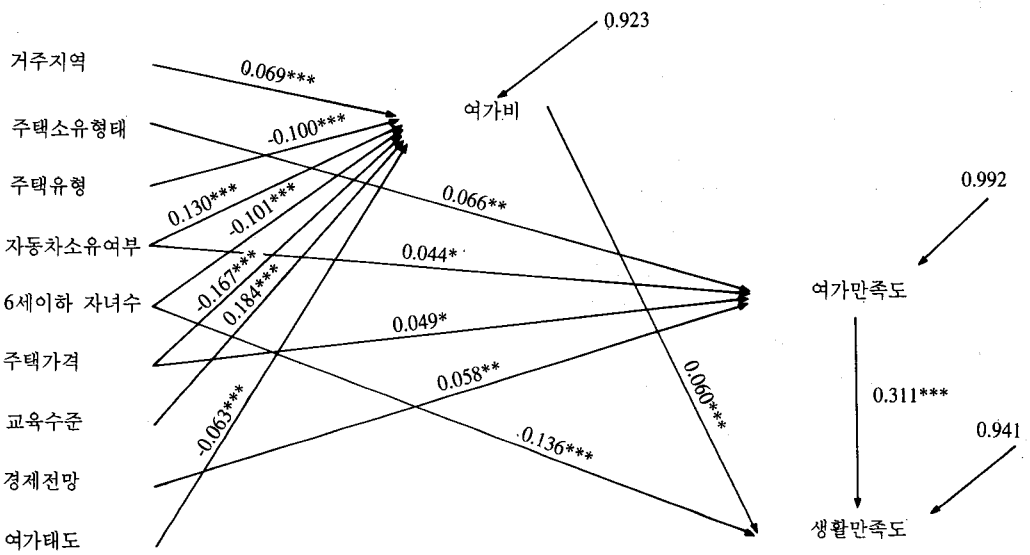
또 여가비 지출에 대한 회귀식에서 부인의 경우도 교육수준(β=.184)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



〈그림 2〉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모형

가계의 여가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β=.20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밖에 거주지역, 주택유형, 6세 이하 자녀수, 19세 이상 자녀수, 주택가격, 남편의 경제전망 및 여가태도가 유의한 변수였고, 모든 변수들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여가만족

음으로 주택가격, 자동차 소유여부, 6세 이하 자녀수, 주택유형, 거주지역, 부인의 여가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4.8%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회귀식에서는 주택소유형태, 자동차 소유여부, 주택가격, 부인의 경제전망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만족도에는



〈그림 3〉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모형

부인의 여가만족도(β=.311), 6세 이하 자녀수, 가계 여가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변수들의 설명력은 11.4%였다.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가만족도로 나타난 것은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연구에서도 여가영역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입증된 Campbell 등(1976)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또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여가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 가족여가비용이 많은 집단일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2〉, 〈그림 3〉의 경로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가계의 여가비 지출과 남편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한 남편 생활만족도의 총경로효과를 보면, 자동차 소유여부, 가계여가비 및 남편의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각각 .128, .079, .246의 정적 총효과를 나타낸 반면, 남편의 직업이 미취업일 때 -.113의 부적 총효과를, 그리고 남편의 경제전망은 정적 직접효과외에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한 정적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많을수록, 남편의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또한 남편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여가비를 많이 지출하고, 여가에 만족함으로써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은 부적 직접효과만을 가짐으로써 미취업자 및 기타 집단에 비해 봉급생활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 한편 부채액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부적 직접효과를 갖으나 비인과적 효과로 인해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가계의 여가비 지출과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한 부인 생활만족도의 총경로효과를 보면, 여가비 지출과 부인의 여가만족도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어, 여가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부인의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였다. 반면 6세 이하 자녀수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적 직접효과뿐 아니라 가계의 여가비 지출을 매개로 한 부적 간접효과와 부적 비인과적효과로 인해 총효과는 다소 감소되었다. 즉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여가비 지출을 적게 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다소 감소되나 6세 이하의 자녀수는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함

으로써 총효과는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의 경로모형을 비교해 보면, 남편의 경로모형에서는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가비 지출이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부인의 경로모형에서는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가계가 동일한 여가비를 지출한다 해도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여가만족도의 차이가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여가비 지출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계의 여가비 지출모형에서 남편관련변수와 부인관련변수를 각각 통제하여 분석했을때 거주지역, 주택유형, 6세 이하의 자녀수, 주택가격,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여가태도 등이 공통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자동차 소유여부, 저축액, 교육수준, 경제전망, 여가태도, 여가비였으며, 부인의 여가만족도에는 주택소유형태, 자동차 소유여부와 경제전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세째,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자동차 소유여부, 부채액, 직업, 경제전망, 여가비, 여가만족도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가족수, 6세 이하 자녀수, 여가비, 여가만족도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네째, 남편의 경로모형에 있어서 가계의 여가비 지출이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가비 지출이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부인의 경로모형에서는 여가비 지출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여가비 지출에는 가계관련변수, 개인변수, 여가관련변수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의 여가비 지출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이나 가계가 소비지출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여가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한 재무관리 프로그램이나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이나 가계에 유용한 재무관리능력과 재무관리방법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소유형태였으며, 자동차소유여부와 경제전망도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나 남편의 여가만족도는 저축액, 교육수준 및 여가비 지출, 여가태도 등의 영향을 받은 반면, 부인의 여가만족도는 여가관련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자산상태 및 경제상태가 여가생활만족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여가비 지출증가가 곧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가비와 같은 양적 측면외에 여가생활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남편의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력과 여가비 지출능력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을,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용이성이나 경제전망들을 고려한 새로운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가만족도로서, 남편과 부인의 생활에서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가비 지출은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가 다르므로 여가만족도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지출의 증가가 바로 생활만족과 연결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에서 여가비 지출은 남편의 여가만족도를 매개로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의 여가만족도를 거치지 않고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두 경로모형중 하나만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부부의 생활만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가비 지출과 부부 각각의 여가만족도를 고려하여 부부공동의 여가나 가족여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가생활양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가비 지출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 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특정 여가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과 같은 여가활동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 변수는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자료에서 가족관계, 경제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의 세가지 항목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생활만족도의 다양한 하위영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총소비지출 중 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율,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비 지출 내용의 세분화, 특정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기준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과 결혼상태에 따른 여가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청소년이나 미혼자, 시간이나 금전자원이 풍부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주기와 생활양식을 고려하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이주(1988),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4), 113-127.
2)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이론과 실제-, 서울 : 백산출판사.
3) 김영숙(1990),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50.
4) 김외숙·이기춘(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08-218.
5)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6)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6.
7)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0.
8)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1), 53-60.
9) 이종숙(1989), 확대기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0) 임정빈(1990b), 농촌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135-153.
11) 임정빈 외 6인(1995), 서울시 아파트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29-142.
12)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13(3), 47-57.
13)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14)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15) 홍향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4.

16) Campbell, A., P.E. Converse & W.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Russell Sage Foundation.

17) Dadis, R., F. Derrick, A. Lehfeld, and K. E. Wolfe (1981), Cross-Section Studies of Recreation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rue Research*, 13(3), 181-194.

18) Dadis, R., H.S. Ferrer, & O. Pacro(1993),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 in the United States,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9, 194-200.

19) Kim,S.M.& G.S.Hong(1995), Leisure Expenditure Pattern Among Korean Families,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 213-214.

20) Talbot, M,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Services, *Family Economics Review*, 2(4), 21-24.

21) Unger, L.S. & J.B.Kernan(1981), Leisure and the QOL Construct: A Review & Some Modest Proposal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607-611.